

첨삭답안	고려대학교 2013 모의 '사실'	작성자	베리베리스트로베리 님
------	--------------------	-----	-------------

**[문항 1]**

제시문 1은 역사를 기술하는 서로 다른 세 관점을 보여준다. 먼저 랑케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만 역사를 서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콜링우드는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 의미있는 역사서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카는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했다.

제시문 2의 문학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작가가 사건을 꾸며내고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콜링우드의 관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비록 허구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사람들은 문학을 통해 단순 사실의 나열 이상의 감동과 가르침을 얻는다. 이러한 문학은 곧 사람들과의 감수성과 연결되어 현실에서도 사실적 호소력을 가지게 된다.

1. 제시문 3에서 이야기하는 언론은 기자가 사건의 이면을 모두 파악해야 진실보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이 중시되는 카의 관점과 연결지을 수 있다. 해석 공동체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사실의 성격을 바꾸어놓을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해석 공동체가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경우 시민들은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해석공동체는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안정적 균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랑케의 관점처럼 객관적 사실만을 추구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겠지만 **2.완벽한 객관성이란 현대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반면 사실을 왜곡시킬 정도의 주관성 역시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사실의 재창조를 통한 허구의 완성은 그 분야가 문학에 국한되어있다는 부분에서 우수성을 입증 받을 수 있었다. **3.그러나 현실속에서 허구의 세계에 얽매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상상 속에 빠져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카의 관점과 같이 사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완전한 사실 속의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첨삭 포인트]**

1. 3문단, 제시문 (3)을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지적입니다. (3)에 따르면 해석공동체는 객관적 사실보다 우선될 수도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버거와 루크만은 해석 공동체의 존재가 언론의 객관성이라는 개념 혹은 가치보다 우선된다고 주장한다'**이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지나치게 주관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된다는 것이 제시문 (3)의 내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완벽한 객관성이 왜 존재하지 못하나요? 이에 대한 근거 서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콜링우드는 허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강조하는 것이고 해석만을 강조하는 것이 허구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B-**

총평	형식적으로는 우수하나, 내용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거 서술, 논증 부분을 주력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